

시가켄[滋賀県] 히요시타이사[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 와 한국(韓國)의 당산제(堂山祭)의 비교(比較) 고찰(考察)

On Sannosai Festival

滋賀県日吉大社の山王祭と韓国堂山祭の比較考察

Hyunkuk PARK

朴 炫 国

概 要

滋賀県坂本日吉大社における山王祭の進行と特徴について調べて見た。この祭りは、日本の他の地域の祭りに似ている面や同一点が存在する。韓国の堂山祭という祭りや、そのほかの民間信仰と似ている点もたくさんある。滋賀県大津市坂本という地域的特性や歴史的背景などがお互いに関連しあうことにより、今日の祭りに変化して来たのであろう。特に生産と豊饒を象徴する行為として、神輿を通して性行為、出産行為などが再演されたように見えることは、韓国南原の三童クッノリとも一脈相通ずる面がある。

キーワード：山王祭、祭り、神道、佛教、習合、神社、坂本、比叡山、堂山祭

Abstract

This report offers a chronological account of the processes and sequences in the Sannosai Festival(ceremony) of Hiyoshi Taisha Shrine and analyzes the folkloric meaning and symbols of each aspect of the ceremony. For this purpose, my research was not limited to this festival only but, reached widely to other areas of Japan and Korea. Through these examinations, we can see the social role, religious character, historic relationship and economic effects of this ceremony.

Keywords: Sannosai, Festival, Shintoism, Buddhism, Harmony, Shrine, Sakamoto, Hieizan, Tansanjae

主題語：산노사이, 축제, 신토, 불교, 습합, 진자, 사카모토, 히에잔, 당산제

1. 머리말

인간(人間)은 자연(自然) 환경(環境) 속에서 자연(自然)과 교류(交流)하면서 살아왔다. 인간(人間)은 자연(自然) 환경(環境) 속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자연(自然)을 활용(活用)하여 인간(人間) 생활(生活)의 편의(便宜)를 도모(圖謀)해왔다. 때때로 인간(人間)은 자연(自然) 재해(災害)의 피해(被害)를 입으면서도 새로운 의지(意志)로 자연(自然)과 공존(共存)해왔다. 그리고 인간(人間)이 무력(無力)함을 느낄 때, 인간(人間)은 다시 자연(自然)의 힘이나 자연(自然) 속에 있는 신(神)에게 기원(祈願)하거나 의지(依支)해왔다. 인간(人間)은 개인적(個人的)으로 자신(自身)의 조상(祖上)에 대(對)한 기본적(基本的)인 숭배(崇拜) 의식(意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人間) 개인(個人)의 관심(關心)이나 희망(希望)이 집단(集團) 안에서 공통성(共通性)을 지닐 때 집단(集團) 의식(意識)으로 활성화(活性化)되고, 민간신앙(民間信仰)의 성격(性格)을 지닌 축제(祝祭)로 발전할 수 있다.¹⁾ 히요시타이샤[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 역시(亦是) 인간(人間)과 자연(自然)의 교류(交流)의 역사(歷史)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事例)라고 하겠다. 히요시타이샤[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는 인간(人間)이 산신(山神)에게 풍요(豐饒)와 출산(出產)의 안녕(安寧) 및 번성(繁盛)을 기원(祈願)하고 자연(自然)의 힘으로 인간(人間)의 한계(限界)를 극복(克服)할 수 있다는 다짐과 장렬(壯烈)한 인간(人間)의 힘을 보여주는 제의(祭儀)이다. 이러한 마을 축제(祝祭)는 한국(韓國)의 당산제(堂山祭)와도 여러 가지 면(面)에서 공통점(共通點)을 보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발적(自發的)으로 참여(參與)하여 한해의 풍년(豐年)을 기원(祈願)하고 줄다리거나 마을 행사(行事)를 통(通)하여 일체감(一體感)을 확인(確認)하고 마을 신(神)에게 인간(人間)의 의지(意志)와 역동성(逆動性)을 보여주는 면(面)에서는 일치(一致)한다고 본다. 일본(日本)의 마을 축제(祝祭)의 경우 미코시[神輿]에 신(神)을 태워서 이동(移動)하면서 힘을 과시(誇示)하는데 이것은 한국(韓國)의 다리밟기²⁾나 지신밟기,³⁾ 마을에서 줄을 만들어 줄다리를 하기 전에 줄을 어깨에 매고 마을을 한바퀴 도는 것은 같은 맥락(脈絡)이 아닌가 한다.

이 글에서는 히요시타이샤[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의 진행(進行) 과정(過程)을 시간(時間)순서(順序)로 언급(言及)하면서 각(各) 행사(行事)가 지닌 민속학적(民俗學的) 의미(意味)와 상징적(象徵的) 표상(表象)을 분석(分析)하고자 한다. 이를 위(為)해서 이 지역(地域)에 국한(局限)하지 않고 일본(日本)의 다른 지역(地域)이나 한국(韓國)의 사례(事例)도 폭넓게 활용(活用)하여 보다 깊이 있게 접근(接近)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檢討)를 통(通)하여 이곳 축제(祝祭)의 사회적(社會的) 역할(役割), 신앙적(信仰的) 특징(特徵), 역사적(歷史的) 사실(史實)과의 관련성(關聯性),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등(等)을 보다 분명(分明)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본(日本)의 고유명사(固有名詞)나 제의(祭儀), 지명(地名), 명칭(名稱) 등(等)에 관(關)한 용어(用語)는 일본어(日本語) 표현(表現)을 그대로 사용(使用)하고 한자(漢字)는 []에 넣어 두고, 한국어(韓國語) 한자(漢字)는 ()에 넣는다.

2. 지역(地域) 배경(背景)

간사이[關西] 지방(地方)은 지형(地形)상(上) 일본(日本)의 중심(中心)에 해당(該當)되는 곳이다. 북(北)쪽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남(南)쪽 규슈[九州]의 중간(中間) 지점(地點)이다. 역사적(歷史的)으로 간사이[關西] 지역(地域)은 에도[江戸] 시대(時代) 이전(以前) 아스카[飛鳥], 나라[奈良],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등(等) 일본(日本) 고대(古代) 국가(國家)의 수도(首都)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現在)의 일본(日本) 에도[江戸] 시대(時代) 수도(首都) 도쿄[東京]가 수도(首都)로 정(定)해지기 전(前)까지 간사이[關西] 지역(地域)은 일본(日本)의 정치(政治), 사회(社會), 문화(文化), 경제(經濟)의 중심지(中心地)였다. 이 간사이[關西] 지역(地域)의 일본(日本)

경제(經濟)의 금고(金庫)의 역할(役割)을 해온 곳이 시가켄[滋賀県]의 비와코[琵琶湖]와 그 주변(周邊)이다. 오래 전(前)부터 사람들은 이 비와코[琵琶湖]의 풍부(豊富)한 물을 이용(利用)하여 물자(物資) 운반(運搬), 수도작(水稻作)의 생산(生産) 등(等)을 시도(試図)해왔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歷史的)으로 비록 일시적(一時的)이지만 나라[奈良] 시대(時代) 서기(西紀) 667년(年) 이곳 오츠시[大津市]에 수도(首都)를 옮겨 온 적도 있었다. 특(特)히 히요시타이사[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가 열리는 사카모토[坂本]는 비와코[琵琶湖]와 교토[京都]를 연결(連結)하는 교통(交通)의 요지(要地)로 상업(商業)과 수운(水運), 석축(石築) 시공(施工), 농업(農業) 생산(生産) 등(等)으로 유명(有名)한 곳이다. 그리고 이 사카모토[坂本] 뒤에 위치(位置)한 산(山)은 히에잔[比叡山]으로 일본(日本) 불교(仏教)의 중심(中心) 산(山)이다. 일본(日本) 불교(仏教)의 여러 승려(僧侶)들이 이곳 히에잔[比叡山]에서 수도(修道)하여 새로운 종파(宗派)를 만들었다.⁴⁾ 히에잔[比叡山]의 승려(僧侶)들이 노년(老年)을 지내는 곳도 이곳 사카모토[坂本]이다. 이처럼 사카모토[坂本]는 지역적(地域的), 경제적(經濟的), 종교적(宗教的), 정치적(政治的) 이유(理由) 등(等)으로 일본(日本) 역사(歷史)에서 중요(重要)한 곳이다.

사카모토[坂本]의 히요시타이사[日吉大社]는 산노우[山王] 7사(社), 산노우[山王] 21사(社)라고 하여 많은 건물(建物)과 넓은 지역(地域)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地域)은 둘로 나뉘볼 수 있다. 하나는 예로부터 전(前)해오는 진자[神社] 지역(地域)으로 니시혼미야[西本宮] 지역(地域)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히가시혼미야[東本宮]라고 하는 데 이곳은 서기(西紀) 667년(年) 나라[奈良] 시대(時代) 나라[奈良]에서 일시적(一時的)으로 수도(首都)를 옮겨와 오츠교[大津京]가 존재(存在)하던 당시(當時) 나라에서 옮겨온 신(神)을 모신 곳이다. 이들 지역(地域)은 지금(只今) 거의 모두 히요시타이사[日吉大社] 경내(境内)에 해당(該當)되지만 역사적(歷史的)으로 불교(仏教)의 사찰(寺刹)이 있었던 곳도 있으며 시대(時代)에 따라서 역사적(歷史的)인 부침(浮沈)이 많았던 곳이다.

이들 진자[神社] 경내(境内)의 북서(北西)쪽 뒤편 산기슭에 우시오야마[牛尾山]라고도 하는 하치오지야마[八王子山]가 있다. 높이는 해발 200미터 정도(程度)이다. 이 산(山) 8부 능선(稜線) 부근(附近)의 바위가 산노사이[山王祭]의 대상신(対象神)인 산신(山神)이다. 이 바위 산신(山神)을 중심(中心)으로 좌우(左右)에 두 개의 건물(建物)이 있다. 바위를 등지고 비와코[琵琶湖]를 향(向)해 섰을 때 오른쪽, 동(東)쪽의 건물(建物)이 우시오미야[牛尾宮]이다. 이 건물(建物)은 하치오지야마[八王子山]라고도 한다. 이곳은 농경(農耕)의 신(神)으로 여기는 소를 신(神)으로 섬기는 곳이다. 또한 지신(地神), 즉 지주신[地主神]인 오야마구이노가미[大山咋神] 아라미타마[荒魂]를 제사(祭祀)한다. 이 오야마구이노가미[大山咋神]는 오보야마구히노가미, 야마스에노누시노카미(山末之大主神)라고도 한다. 일본 히요시타이사[日吉大社]의 토착신(土着神)으로 히에잔(比叡山)을 지키는 신이다. 오야마구이노가미[大山咋神]의 구이[咋]는 항(杭)을 뜻하며 큰산을 지키는 산신(山神)이라는 뜻이다.⁵⁾ 우시오미야[牛尾宮]의 내부(内部)에는 소의 조각(彫刻)과 소의 그림이 장식(裝飾)되어 있다. 건물(建物)은 산(山) 중턱에 나무로 기둥을 세워지었는데 노송(老松) 나무껍질로 지붕을 이었고 1691년(年) 준공(竣工)했다. 그리고 왼쪽, 즉 서(西)쪽의 건물(建物)이 산미야진자[三宮神社]이다. 이곳은 산신(山神) 가모타마요리히메노가미[鴨玉依姬神] 아라미타마[荒魂]를 제사(祭祀)지내는 곳이다. 건물(建物)은 산(山) 중턱에 나무로 기둥을 세워지었는데 노송(老松) 나무껍질로 지붕을 이었고 1599년(年) 준공(竣工)했다.⁶⁾ 이 축제(祝祭)에서는 이 두 신(神)이 중심(中心)이 되고 그밖에 오츠교[大津京] 당시(當時) 나라[奈良]에서 전(伝)해왔다는 신(神)은 하늘에서 왔다는 천신(天神) 계통(系統)이다. 따라서 이곳 축제(祝祭)에서 중심(中心)이 되는 신(神)은 산(山)의 신(神), 소의 신(神) 그리고 하늘신(神) 등(等) 세 신(神)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축제(祝祭)의 중심(中心)이 되는 마을은 사카모토[坂本]이다. 비와코[琵琶湖]가 해발(海拔) 85미터 정도(程度)이고 비와코[琵琶湖] 서(西)쪽 산(山) 기슭에 히요시타이사[日吉大社]가 해

발(海拔) 130 미터 부근(附近)에 자리잡고 있다. 이 비와코[琵琶湖]와 히요시타이사[日吉大社] 사이 경사면(傾斜面)에 동향(東向)으로 사카모토[坂本]라고 하는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이 축제(祝祭)는 이 사카모토[坂本] 마을 사람들이 중심(中心)이 되어 진행(進行)하는 마을 축제(祝祭)이다.

3. 제의(祭儀)의 명칭(名稱)과 주신(主神)

일본(日本)의 전통(傳統) 신앙(信仰)은 다신론(多神論) 양상(樣相)을 보이며 명맥(命脈)이 길다. 지역(地域)에 따라서 진자[神社]에 모시는 신(神)이 다양(多樣)하고, 한 가정(家庭)에서도 조상신(祖上神)을 모신 부츠단[仏壇]과 아마테라스신[天照神]을 모신 가미다나[神棚]를 쉽게 볼 수 있다. 부츠단[仏壇]은 보통 와실[和室]이라고 하는 다타미방 한 면(面)에 들여 놓는데 이곳에는 매일(毎日) 몇 차례 썩 물이나 먹거리를 올려놓는다. 그리고 가미다나[神棚]는 다타미방 이외(以外)의 부엌이나 다른 방 천정(天井) 밑에 집 모양(模樣)으로 간단(簡單)히 만들어 고정(固定)시켜둔다. 가미다나[神棚]에 모신 신(神)은 아마테라스[天照神]로 이세진구[伊勢神宮]에 모신 일본(日本) 선조신(先祖神)부터 각(各) 지역(地域)의 진자[神社]에 모신 여러 씨족신(氏族神)까지 모든 신(神)을 통합(統合)하여 모셔두는 신(神)이다. 이곳에는 일년(一年)에 한 차례 집 가까운 진자[神社]에서 구입(購入)하거나 진자[神社]의 구우지[宮司]가 각(各) 집에 배달(配達)해주는 오후다[御札]를 올려놓는다. 그간 올려 두었던 오후다[御札]는 매년(毎年) 정월(正月) 진자[神社]에서 모아 불태운다. 또한 오키나와[沖縄]에서는 이 두 신(神)이외(以外)에도 부엌에 조왕신(竈王神)을 모시는 신포(信牌)를 모셔 둔다. 그리고 해안(海岸) 지방(地方)에서는 바다와 관련(關聯)된 신(神)이 많고, 내륙(內陸) 지방(地方)에서는 산(山)과 관련(關聯)된 신(神)이 많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신(神)은 산(山)과 관련(關聯)된 신(神)이다. 산(山)과 관련(關聯)된 산신(山神)은 산악신(山岳神)이라고도 하는 신(神)으로서 풍요(豐饒)를 가져다주는 신(神)이다. 산신(山神)이나 산악신(山岳神)은 북방계(北方系) 민족(民族)이 지닌 신앙적(信仰的) 특징(特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다.⁷⁾ 또한 산(山)은 농사(農事)에 필요(必要)한 물을 보관(保管)하고 있다가 물을 흘려보내 농사(農事)의 풍요(豐饒)를 돕고, 죽은 자(者)를 묻는 장소(場所), 즉 조상신(祖上神)이 거(居)하는 신령(神靈)한 곳이기도 하다.⁸⁾ 논밭의 신(神)은 농사(農事)에 필수적(必須的)인 소의 신(神)과도 연결(連結)되어 있다. 따라서 제의(祭儀)의 목적(目的) 역시(亦是) 논밭의 풍요(豐饒)를 가져다준다고 믿는 산신(山神)에게 한 해 동안 풍요(豐饒)와 다산(多産)을 기원(祈願)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원(祈願) 행위(行為)는 단순(單純)한 기원(祈願) 행위(行為)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자신(自身)의 능력(能力)을 보이기 위(為)해서 신(神)을 태운 가마를 메고 산(山)에 오르거나, 산(山)에서 내려오는 행위(行為), 그리고 가마를 가지고 출산(出産)을 흉내 내는 행위(行為)등을 통(通)해서 극대화(極大化)된다.

일본(日本)에서 산노사이[山王祭]라는 명칭(名稱)을 사용(使用)하는 축제(祝祭)는 그다지 많지 않다. 가장 대표적(代表的)인 곳은 이곳 시가켄[滋賀県]의 오츠시[大津市] 사카모토[坂本]의 히요시타이사[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와 도쿄[東京] 지요다구[千代田区]의 히에진자[日枝神社]를 들 수 있다. 다만 이 두 지역은 간토[關東]와 간사이[關西]라는 지역적(地域的)인 차이(差異)뿐 아니라 제일(祭日)(히에진자[日枝神社]의 경우, 6월 7일 - 17일), 지역적(地域的)인 특성(特性)(히에진자는 원래 바닷가에 있었다고 함)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순(單純) 비교(比較)하기에는 무리(無理)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산왕(山王) 신앙(信仰)이라고 하여 이곳 원승이와 관련(關聯)된 보은담(報恩譚)이 전해지고 있으나⁹⁾ 이 축제(祝祭)와는 직접(直接) 관련(關聯)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언급(言及)하는 것은 생략(省略)한다.

4. 제의(祭儀)의 준비(準備)와 참가자(參加者)

제의(祭儀)를 위(為)해서 사카모토[坂本] 지역(地域) 전(全) 마을이 참가(參加)한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상례(喪禮), 성인식(成人式), 화재(火災) 예방(予防)과 소방(消防) 등등(等等)을 위(為)해서 다양(多樣)한 조직(組織)을 꾸려왔다. 이 글에서는 이 축제(祝祭)에 관(関)한 조직(組織)에 대(對)해서만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히요시타이사[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를 위한 조직(組織)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한 조직(組織)은 다시 반(班)이 넷으로 나뉘고, 각 반(班)은 다시 다섯에서 여덟 우지코[氏子]로 나뉘고 각(各) 우지코[氏子]에는 40 - 50 호(戸)가 참가(參加)한다. 따라서 전체(全体) 참가(參加) 호수(戶數)는 1600 - 2,000 호(戸) 정도(程度)이고, 참가(參加) 인원(人員)은 8,000 명(名) 정도(程度)이다. 이들은 진자[神社] 단위(單位) 조직(組織)을 가지고 있으며 히요시타이사[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를 위(為)해서는 이 조직(組織)이 활용(活用)되어 정(定)해진 돈을 납부(納付)하고 필요(必要)에 따라서 회의(會議)에 참가(參加)하여 의견(意見)을 듣거나 제시(提示)하고, 당번제(當番制)로 자신(自身)에게 부여(賦与)된 작업(作業)에 적극적인(積極的)으로 참여(參與)한다. 그간 매년(每年) 진행(進行)되어온 순서(順序)가 정(定)해져 있기 때문에 축제(祝祭)의 진행(進行)을 위(為)해서 전면(全面)에 나서는 일은 윤번제(輪番制)로 맡아서 한다.

히요시타이사[日吉大社] 산노사이[山王祭]를 위(為)한 준비(準備)는 양력(陽曆) 정월(正月) 1 일(日) 경(頃)부터 시작(始作)된다. 이 때부터 마을 대표자(代表者)들이 모여 축제(祝祭)의 진행(進行)과 일정(日程), 준비상황(準備狀況)과 준비물(準備物)을 정(定)하고 보고(報告)한다. 2000 명(名) 이상(以上)이 참가(參加)하여 준비(準備)하고 진행(進行)하지만 각(各) 조직(組織)을 중심(中心)으로 일이 진행(進行)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모여서 회의(會議)를 해도 50 명(名) 정도(程度)가 참가(參加)한다.

5. 히요시타이사[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의 진행(進行)

제의(祭儀)의 본격적(本格的)인 시작(始作)은 3 월(月) 첫 번째 일요일(日曜日) 오전(午前) 10 시(時) 경(頃)이다. 미코시[神輿]를 진자[神社] 경내(境内)에서 진자[神社] 뒤에 있는 하찌오지야마[八王子山]의 산 정상 부근 중턱에 있는 산미야진자[三宮神社]와 우시오미야[牛尾宮]로 운반(運搬)하여 산중턱에 지은 건물(建物) 안에 안치해 둔다. 이것을 미코시아게[神輿上]라고 한다. 이후(以後) 매일(毎日) 저녁 진자[神社]의 구우지[宮司]가 하찌오지야마[八王子山]에 올라 산미야진자[三宮神社]와 우시오미야[牛尾宮]의 건물(建物) 앞에 등불을 밝혀둔다. 3 월(月) 27 일(日) 오후(午後) 여섯 시(時) 경(頃) 마사카키신지[真榊神事]를 행(行)한다. 오코토[雄琴]에 있는 노카진자[那波加神社]에서 잘라 만든 오사카키[大榊]라고 하는 신목(神木)을 히로시바진자[広芝神社]로 옮겨온다. 오코토[雄琴]의 노카진자[神社]는 사카모토[坂本]의 히요시타이사[日吉大社]와는 3 킬로미터 정도(程度) 떨어져 있다. 그리고 히로시바진자[神社]는 노카진자[那波加神社]에서 2 킬로미터 쯤 떨어져 있다.

3 월(月) 30 일(日) 오후(午後) 일곱 시(時) 경(頃) 오이테신지[神事]를 행(行)한다. 히로시바진자[広芝神社]에서 신(神)을 내려 받은 신수(神樹)인 오사카키[大榊]를 히요시타이사[日吉大社] 니시혼미야[西本宮]로 옮겨온다.

4 월(月) 3 일(日) 오후(午後) 일곱 시(時) 경(頃) 오사카키신지[大榊神事]를 시작(始作)한다. 니시혼미야[西本宮]에 안치(安置)되어 있는 오사카키[大榊]를 들고 사카모토[坂本] 마을 안을 일주(一周)한 다음 오츠시[大津市] 텐손진자[天孫神社]에 안치(安置)해 둔다. 텐손진자[天孫神社]는 나라[奈良]에서 오츠교[大津京]로 당시(當時)의 수도(首都)가 옮겨 올 때 나라[奈良]에서 모시

고 온 나라 [奈良] 의 천신(天神)이 처음 머물렀던 곳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지역(地域)에서 산출(產出)된 나무에 내려온 산신(山神)이 나라 [奈良]에서 옮겨오는 천신(天神)을 맞이하는 상징적(象徵的)인 의미(意味)로 이 행사(行事)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처음 노카진자 [那波加神社]에서 잘라 만든 오사카키 [大榑]를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마을을 일주(一周)하면서 진자 [神社]에 모시는 의식(儀式)은 한국(韓國)의 지신밟기와 같은 뜻이다. 단순(單純)한 이동(移動)을 위(爲)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한 발 한 발 신중(慎重)히 토지신(土地神)의 안위(安慰)와 마을 사람의 평안(平安)을 기원(祈願)하는 의식(意識)이 담겨져 있다. 오사카키신지 [大榑神事]는 오후(午後) 일곱 시(時) 무렵 시작(始作)하여 오후(午後) 아홉 시(時) 경(傾) 끝난다.

이후(以後) 12 일(日) 우마노신지 [午神事], 13 일(日) 히츠지노신지 [未神事], 14 일(日) 사루노신지 [申神事]를 행(行)한다. 이들 명칭(名稱)은 12 간지(干支)의 말, 양, 원숭이에 해당(該當)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음 이 축제(祝祭)가 시작(始作)될 당시(當時) 이후(以後)에는 말의 날, 양의 날, 원숭이의 날 각각(各各) 행(行)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韓國)에서는 정월(正月) 첫 상오일(上午日), 산신일(上申日)을 지역(地域)에 따라서 주의(注意)하는 일은 있지만 4 월(月)에 가리는 일은 없다.¹⁰⁾ 일본(日本)에서도 정월(正月)에는 가정(家庭)의 번영(繁榮)과 논밭의 풍요(豐饒)를 가져다주는 조상신(祖上神)에게 제사(祭祀)하는 풍습(風習)이 있었으나 지금(只今)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¹¹⁾ 그러나 현재(現在) 진행(進行)되는 축제(祝祭)는 매년(每年) 음력(陰曆)이 아닌 양력(陽曆) 4 월(月) 12 일(日), 4 월(月) 13 일(日), 4 월(月) 14 일(日) 행(行)해진다. 행사(行事)의 진행(進行)과 말, 양, 원숭이 등(等)과의 관련성(關聯性)은 아직 조사(調査)하고 있다.

1) 우마노신지 [午神事] : 매년(每年) 양력(陽曆) 4 월(月) 12 일(日)은 우마노신지 [午神事]라고 하는 행사(行事)를 실시(實施)한다. 이날 오전(午前) 8 시(時)부터 오미야가와 [大宮川]에서 부정(不淨)을 씻고 몸과 마음을 정결(淨潔)하게 하는 미소기 [禊]를 실시(實施)한다. 그리고 오후(午後) 6 시(時) 무렵 산노사이 [山王祭]를 진행(進行)하는 두 지역(地域)에서 시간(時間)을 정(定)하여 순번제(順番制)로 대나무로 만든 횃불을 어깨에 메고 소리를 지르며 정(定)해진 장소(場所)로 들어간다 <사진 1>, <사진 2>. 이 정(定)해진 장소(場所)는 사카모토 [坂本]의 마을 안에 있는 일정(一定)한 장소(場所)를 말한다. 매년(每年) 일정(一定)하지 않지만 대개(大概) 마을 안에 있는 사찰(寺刹)의 마당이나 진자(神社)의 마당 등(等) 일정(一定)한 공간(空間)이 확보(確保)된 곳에서 실시(實施)한다. 이곳에는 무사(武士) 차림의 지휘자(指揮者)들이 대기해 있다가 마을 사람들이 들어와 정렬(整列)하면 호명(呼名)한다 <사진 3> <사진 4>. 이때 호명(呼名)을 받은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 뛰어나간다. 이들이 가는 곳은 히요시타이샤 [日吉大社] 뒷산 하찌오지야마 [八王子山] 정상(頂上) 부근(附近)에 있는 산미야진자 [三宮神社]와 우시오미야 [牛尾宮]이다. (산(山) 정상(頂上)을 향(向)해서 섰을 때 왼쪽이 산미야진자 [三宮神社]이고 <사진 5> 오른쪽이 우시오미야 [牛尾宮]이다 <사진 6>). 처음 호명(呼名) 장소(場所)에서 이곳까지 급경사(急傾斜) 산길 800 여 미터를 30 분(分) 정도(程度) 걸려서 올라간다. 이들이 모두 올라가면 진자(神社)의 구우지 [宮司]가 뒤이어 올라와 의식(儀式)을 거행(挙行)하면 산미야진자 [三宮神社]의 신(神)을 태운 미코시 [神輿]가 먼저 내려가고 <사진 8> 뒤이어 우시오미야 [牛尾宮]의 신(神)을 태운 미코시 [神輿]를 어깨에 메고 산길을 내려간다 <사진 7>. 급경사(急傾斜)인 산길을 소리를 지르면 내려간다. 맨 앞에는 목마를 탄 사람이 미코시 [神輿]와 연결(連結)된 줄을 들고 앞장을 선다. 주변(周邊)에는 부축하는 사람들이 목마(木馬)를 탄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한다. 그리고 미코시 [神輿]는 30 여(余)명(名)이 어깨에 매고 내려가는데 산길이 급경사(急傾斜)이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넘어지거나 신발이 벗겨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구경꾼들과 더불어 소리를 지르면 내려간다. 이들 신(神)을 태운 가마가 내려가 히요시타이샤 [日吉大社] 히가시혼미야 [東本宮] 안에 있는 하이텐 [拝殿]이라고 하는 곳에 모셔진다. 하이텐 [拝殿]은 가로 세로 4 간(間) 정도(程度)의 건물(建物)로 네 벽(壁)이 옆이 열린 구조(構造)이다. 이들이 도착(到着)

한 뒤 구우지 [宮司]를 중심(中心)으로 각(各) 미코시 [神輿] 앞에 제물(祭物)을 진설(珍設)하고 의례(儀禮)를 거행(挙行)한다. 이 의식(儀式)이 끝나면 이 두 미코시 [神輿]를 하이덴 [拝殿]의 한 가운데 일렬(一列)로 둔다. 이것은 두 신이 하루 밤을 같이 지내는 성교(性交)를 상징(象徵)한다고 한다. 이렇게 미코시 [神輿]를 하이덴 [拝殿]에 두고 의식(儀式)을 거행(挙行)하는 것으로 우마노신지 [午神事]는 끝난다.

2) 히츠지노신지 [未神事], 4 월 (月) 13 일 (日) : 4 월 (月) 12 일 (日), 우마노신지 [午神事]가 끝나고 이튿날 행(行)하는 행사(行事)이다. 이 행사(行事)가 이 축제(祝祭)의 하이라이트에 해당(該當)된다. 오전(午前) 9 시 (時)부터 진자 [神社]의 하이덴 [拝殿]에 있던 산신(山神) 부부(夫婦)의 미코시 [神輿]와 주변 진자 [神社]인 히가시혼미야 [東本宮], 니노미야 [二宮]의 미코시 [神輿]가 요미야바 [宵宮場]에 모인다. 이 때에도 단순(單純)히 미코시 [神輿]를 운반(運搬)하는 것이 아니라 운반(運搬)전후(前後)로 미코시 [神輿]앞에서 제물(祭物)을 진설(陳設)하고 의식(儀式)을 거행(挙行)한다. 요미야바 [宵宮場]는 정면(正面) 4 칸, 옆면 3 칸의 벽(壁)이 없이 열린 구조(構造)로 되어있다. 이 요미야바 [宵宮場]는 일년(一年)에 한번 4 월 (月) 13 일 (日) 히츠지노신지 [未神事]를 위한 건물(建物)이다. 오전(午前) 9 시 (時) 30 분 (分)경 (頃) 요미야바 [宵宮場]에 미코시 [神輿] 4 기(基)가 모인다. 이후(以後) 미코시 [神輿]에 꽃이나 차(茶)를 헌납(獻納)하는 의례(儀禮)가 거행(挙行)된다. 그리고 오후(午後) 한 시 (時)에는 초등(初等) 학교(學校)의 어린 아이가 능수버들과 같은 형태(形態)의 대나무에 꽃을 달아 장식(裝飾)한 꽃대를 들고 마을을 출발(出發)하여 요미야바 [宵宮場]에 도착(到着)하여 꽃을 받친다. 그리고 요미야바 [宵宮場]의 미코시 [神輿]에 여러 곳에서 가져온 꽃이나 차(茶)를 헌상(獻上)하는 순서(順序)를 진행(進行)한다. 끝으로 오후(午後) 6 시 (時) 무렵 진자 [神社]앞에서 각(各) 마을 별(別)로 출연자(出演者)의 이름을 호명(好名)하면 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요미야바 [宵宮場]를 향(向)해 달려가서 일정(一定) 인원(人員)이 오면 요미야바 [宵宮場]에서 미코시 [神輿]를 나무 단(壇) 위에 올려놓고 미코시 [神輿]의 앞뒤에서 미코시 [神輿]를 시소놀이처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反復)한다. 이것을 요미야오도시신지 [宵宮落神事]라고 한다. 각(各) 마을 사람들은 순차적(順次的)으로 호명(好名)을 듣고 각(各) 마을별(別) 미코시 [神輿]로 달려가서 이런 행위(行為)를 한다. 미코시 [神輿]가 모두 4 기(基)가 있고 한 기(基), 한 기(基) 사람이 다 차는 순서(順序)대로 하기 때문에 가장 오래한 미코시 [神輿]는 1 시간(時間) 정도(程度) 요미야오도시신지 [宵宮落神事]를 행(行)한다. 이 요미야오도시신지 [宵宮落神事]는 아기 신(神)의 탄생(誕生) 직전(直前) 산통(産痛)을 상징(象徵)하는 행위(行為)라고 한다. 이 행위(行為)를 하고 있는 동안 축제(祝祭)위원장(委員長)이 축문(祝文) 낭독(朗讀)을 끝내면 동시(同時)에 1 미터 정도(程度) 되는 단상(壇上) 아래로 미코시 [神輿]를 떨어뜨린다. 이 순간(瞬間)이 아기 신(神)의 탄생(誕生) 순간(瞬間)이라고 한다. 이 때 일제히 요미야오도시신지 [宵宮落神事]를 하던 마을 사람들은 경쟁적(競爭的)으로 자신(自身)이 행(行)하던 미코시 [神輿]를 매고 니시혼미야 [西本宮]로 가서 의례(儀禮)를 거행(挙行)한다. 진자 [神社] 부근(附近)의 좁은 길로 미코시 [神輿] 4 기(基)가 일시(一時)에 움직이고 주변(周邊)이 구경꾼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밀고 넘어지면서 일대 혼잡(混雑)을 이룬다.

3) 사루노신지 [申神事] 4 월 (月) 14 일 (日) : 4 월 (月) 13 일 (日) 히츠지노신지 [未神事]가 끝나고 다음날 행(行)한다. 아침 8 시 (時) 30 분 (分) 레이사이 [例祭]부터 행한다. 레이사이 [例祭]는 진자 [神社]에 따라서 행(行)하는 목적(目的)과 날짜가 다르다. 원래(元來) 음력(陰曆) 매월(每月) 1 일 (日) 한 달의 안녕(安寧)과 풍요(豊饒)를 기원(祈願)하여 한국(韓國)의 지전(紙錢)과 같이 길게 자른 종이, 거울을 신(神)에게 헌납(獻納)하고, 방울을 들고 춤을 의식(儀式)을 거행(挙行)한다. 이곳 히요시진자 [日吉神社]에서는 1 연(年)에 한번 산노우사이 [山王祭]의 사루노신지 [申神事]가

열리는 4 월(月) 14 일(日) 아침에 히가시혼미야[東本宮]를 시작(始作)으로 니시혼미야[西本宮]에서 각각(各各) 거행(挙行)한다. 그리고 12 시(時)에는 오우라신지[御浦神事]가 열린다. 오우라신지[御浦神事]는 이 축제(祝祭)에서 가장 중요(重要)한 행사(行事)라고 한다. 이때에는 사카모토[坂本]의 뒷산 히에잔[比叡山] 정상(頂上) 부근(附近)에 자리잡고 있는 천태종(天台宗) 엔라쿠지[延暦寺]의 주지(住持) 스님이 내려와 니시혼미야[西本宮]에서 행사(行事)를 주관(主管)한다. 주지(住持)가 다섯 가지 색깔로 된 호우베이[奉幣]를 헌납(献納)하고 반야심경(般若心經)을 외운다. 이 행사(行事)가 끝나면 참가(参加)했던 마을 사람들이 호우베이[奉幣]의 종이 조각을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간다. 이 종이 조각을 집에 걸어두면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한다. 이 의식(儀式)이 끝나면 열(列)을 지어 이번 축제(祝祭)에 참가(参加)했던 주변(周邊) 진자[神社]의 미코시[神輿] 7 기(基)가 모두 니시혼미야[西本宮]에서 비와코[琵琶湖] 호수(湖水)를 향(向)해 이동(移動)한 뒤 배에 태워 1 킬로미터 정도(程度)를 이동(移動)한 뒤 다시 진자[神社]로 돌아온다. 이것은 서기(西紀) 667 년(年) 오츠쿄[大津京] 당시(当時) 수도(首都)가 있던 나라[奈良]에서 오츠쿄[大津京]로 신(神)이 옮겨오던 행사(行事)를 재연(再演)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때에도 당시(當時)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주변(周邊)의 여러 진자[神社]에서 직접(直接) 출연(出演)하여 제물(祭物)을 올리고, 의례(儀禮)를 거행(挙行)한다.

4) 도리노신지[酉神事] 4 월(月) 15 일(日): 이번 축제(祝祭)의 마지막 행사(行事)로 구우지[宮司]가 히가시혼미야[東本宮]를 시작(始作)으로 여러 진자[神社]에서 거행(挙行)한다. 이 때 헌납(献納)하는 제물(祭物)은 핫쇼진자[八所神社]의 씨족(氏族) 일행(一行)이 준비(準備)한다. 그 이유(理由)는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가 히에잔[比叡山]과 사카모토[坂本] 부근(付根)을 초토화(焦土化)시켰을 당시(當時) 구(旧) 시가쵸[志賀町]의 핫쇼진자[八所神社]의 씨족(氏族) 일행(一行)이 히요시타이사[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를 중단(中断)시키지 않고 전승(伝承)시켰다는 데서 유래(由來)한다. 진자[神社]에서 의식(儀式)을 거행(挙行)하는 도중(途中) 구우지[宮司]가 건물(建物) 밖으로 나와서 건물(建物) 외곽(外郭) 산(山)을 향(向)해 물을 뿌리는 의식(儀式)을 거행(挙行)한다. 이것으로 이번 행사(行事)는 모두 끝난다.

6. 한국(韓國) 당산제(堂山祭)와의 비교(比較)

한반도(韓半島) 남부(南部) 현재(現在)의 한국(韓國) 여러 지역(地域)에서는 주(主)로 매년(毎年) 정월(正月)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평안(平安)과 안녕(安寧), 풍년(豐年)을 기원(祈願)하는 마을 굿을 행(行)한다. 이 마을 굿은 지역에 따라서 액막이, 정월굿 등등(等等) 여러 가지 명칭(名稱)이 많으나 특히 전라도(全羅道)에서는 당산제(堂山祭)라고 한다. 당산(堂山)은 마을의 주신(主神)을 모신 낮은 산(山)으로 마을 중앙(中央)이나 마을 뒤, 마을 입구(入口) 등(等)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당산(堂山)은 마을의 중심(中心) 주신(主神)을 말하기도 하고 마을의 중앙(中央)이라는 뜻도 포함(包含)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毎年) 음력(陰曆) 정월(正月) 보름이나 보름 전후(前後)에 당산제(堂山祭)를 지낸다. 이 당산제(堂山祭)는 마을의 공동(共同) 주신(主神)에게 마을의 안녕(安寧)과 풍년(豐年), 그리고 가가호호(家家戶戶)의 무사태평(無事泰平)을 기원(祈願)하는 의식(儀式)이다. 먼저 음력(陰曆) 정월(正月) 초(初) 마을 사람 가운데 정결(淨潔)한 사람으로 제주(祭主)를 선정(選定)한다. 이때 선정(選定)된 제주(祭主)는 매일(毎日) 목욕재계(沐浴齋戒)하여 자신(自身)을 깨끗이 함은 물론(勿論) 부정(不淨)한 곳에도 가지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정결(淨潔)하게 제물(祭物)을 준비(準備)한다. 제일(祭日) 아침 일찍 당산(堂山)에 가서 준비(準備)해 온 제물(祭物)을 진설(陳設)하여 놓고 제(祭)를 지낸다. 제의(祭儀)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제주(祭主)의 집이나 당산(堂山)에 모여 음복(飮福)을 한다. 이때 사용(使用)되는 비용(費用)은 마을 기금(基金)이나

각(各) 가정(家庭)에서 일정(一定) 금액(金額)을 모금(募金)하는 경우(境遇)도 있다. 또한 걸립(乞粒)이라고 하여 마을에서 조직(組織)한 풍물패가 각(各) 집을 방문(訪問)하여 풍물(風物)을 쳐주고 쌀이나 돈을 받기도 한다. 전라도(全羅道) 지역(地域)에서는 마을에 따라서 음력(陰曆) 정월(正月) 15일(日) 전후(前後)로 날을 정(定)하여 각(各) 집에서 빗짚을 모아서 줄을 만들고 이 줄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한다<사진 9>. 그리고 이 줄을 당산(堂山)의 신체(神體)인 나무나 짐대, 솟대, 남근바위, 입석(立石) 등(等)에 감아 놓고 당산제(堂山祭)를 지내기도 한다<사진 10>,<사진 11>,<사진 12>. 마을 사람들이 줄다리기에 사용(使用)할 줄을 만들고, 각(各) 집을 방문(訪問)하여 돈을 모으고, 줄다리기를 하고, 줄을 당산(堂山)에 감고, 당산제(堂山祭)를 지내는 동안 풍물패들은 계속(繼續)하여 풍물을 치면서 행사(行事)를 진행(進行)한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은 여러 곳에 마련된 술판에서 자유롭게 술이나 고기, 떡 등(等)을 먹으면서 자유(自由)롭게 행동(行動)하고 춤판에서 춤을 추기도 한다.<사진 10>

한국(韓國)의 당산제(堂山祭)는 마을 축제(祝祭)로서 당산제(堂山祭)의 종교적(宗教的) 기능(機能)뿐만 아니라 축제(祝祭)의 상황(狀況) 즉 카오스의 세계(世界)를 형성(形成)하면서 그 세계(世界)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녹아들어 서로 즐기고 마시고 노는 형태(形態)를 취(取)한다. 현실(現實)세계(世界)가 코스모스의 세계(世界)로서 일상적(日常的)이고 규범적(規範的)이라고 한다면 축제(祝祭)의 세계(世界)인 당산제(堂山祭)의 세계(世界)는 카오스의 세계(世界)이다. 이 카오스의 세계(世界)를 몸으로 경험(經驗)하고 체험(體驗)하면서 코스모스 세계(世界)에 영감(靈感)과 활력(活力)을 주고 현실(現實)에 매진(邁進)할 수 있는 힘을 비축(備蓄)한다. 이것이 한국(韓國)의 마을 축제(祝祭)로서 당산제(堂山祭)가 갖는 주요(主要)한 기능(機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日本)의 축제(祝祭)는 지역(地域)에 따라서 다르고 특성(特性)이 있지만 한국(韓國)의 축제(祝祭)에 비(比)하여 규격화(規格化)되어 있고 참가자(參加者)와 비참가자(非參加者)의 구별(區別)이 명확(明確)하다. 축제(祝祭)에 참가(參加)하여 역할(役割)을 담당(担当)하는 사람은 복장(服裝)이나 맡은 임무(任務), 역할(役割) 등(等)이 명확(明確)하고 철저(徹底)하다. 축제(祝祭)의 준비(準備)단계(段階)에서부터 많은 회의(會議)를 통(通)하여 과거(過去)의 잘못이나 시행착오(施行錯誤)를 철저(徹底)히 반성(反省)하여 일사불란(一糸不乱)하게 축제(祝祭)를 진행(進行)한다. 한국(韓國)의 축제(祝祭)의 경우(境遇) 대체적(大体的)인 진행(進行)방법(方法)이나 역할(役割)은 정(定)해져 있지만 별도(別途)의 복장(服裝)으로 구분(区分)하거나 독자적(獨自的)으로 일을 추진(推進)하지 않고 참여(參與)하는 사람 모두가 공동(共同)으로 일을 진행(進行)시킨다. 물론(勿論)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사(祭祀)를 담당(担当)하는 제주(祭主)나 특별(特別)히 종교적(宗教的)인 신성성(神聖性)이 요구(要求)되는 역할(役割) 이외(以外)에는 누구나 공동(共同)으로 참여(參與)하여 적극적(積極的)으로 일을 추진(推進)하는 것이 특징(特徵)이다. 일본(日本) 축제(祝祭)에서는 규모(規模)나 조직(組織), 역할(役割) 등(等)의 면(面)에서 한국(韓國)과 비교(比較)할 수 없을 정도(程度)로 치밀(緻密)하고 정교(精巧)한다. 지금(只今)까지 위에서 언급(言及)한 시가켄[滋賀県] 히요시타이샤[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에서도 축제(祝祭)의 진행자(進行者)와 구경꾼은 엄격(嚴格)히 구분(区分)되고 서로 역할(役割)이 정(定)해져 있다. 서로 공동(共同)의 목표(目標)를 추진(推進)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祝祭)진행자(進行者)가 축제(祝祭)에 대(對)한 목표(目標)와 진행(進行)상황(狀況)이 정(定)해져 연출(演出)하고 구경꾼은 정(定)해진 시간(時間)에 정(定)해진 곳에서 정(定)해진 행사(行事)를 보는 것이 그친다. 구경꾼이 하는 일은 사람의 수(數)를 채워주는 것과 가끔 보이는 놀라운 광경(光景)에 소리를 지르고 사진(写真)을 찍는 정도(程度)이다. 시가켄[滋賀県] 히요시타이샤[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는 한국(韓國)의 어떤 당산제(堂山祭)와 비교(比較)해도 규모(規模)가 크다. 여기서 규모(規模)라 함은 축제(祝祭)의 진행(進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사(行事)가 많고 참가(參加)하는 마을 사람의 수(數)가 많다는 의미(意味)이다. 이렇게 큰 규모(規模)의 한국(韓國) 전통(傳統) 축제(祝祭) 특(特)히 전통적(傳統的)으로 이어내려 온 당산제(堂山祭)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韓國)의 당산제(堂山祭)는 마을 단위(單位)로 거행(舉行)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접(隣接)한 여러 마을이 합심(合心)하여 지내는 전통(傳統) 축제(祝祭)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 시가켄[滋賀県] 히요시타이샤[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는 무속(巫俗), 신도(神道), 불교(佛教) 등(等) 여러 가지 복합(複合) 종교적(宗教的) 성격(性格)을 지닌다. 직접(直接) 스님이 참가(參加)하기도 하고, 진자[神社]의 구우지[宮司]가 참가(參加)하기도 하고, 행사(行事)에 따라서 진자[神社]나 절 등(等)에서 직접(直接) 행사(行事)를 주관(主管)하여 진행(進行)하기도 한다. 한국(韓國)의 당산제(堂山祭)는 주(主)로 마을 사람들이 직접(直接) 준비(準備)하며 사용되는 경비(經費) 등(等)도 직접(直接) 마련한다. 마을 안이나 마을 부근(附近)에 불교(佛教)의 절이 있어도 스님은 거의 참가(參加)하지 않는다. 또한 마을 안에 무당(巫堂)이 있어도 무당(巫堂)은 당산제(堂山祭)에 거의 참가(參加)하지 않는다. 시가켄[滋賀県] 히요시타이샤[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에서 불교(佛教)의 절이나 진자[神社]를 행사(行事)의 장소(場所)로 이용(利用)하고 스님이나 미야지[]가 마을 축제(祝祭)의 진행(進行)이나 행사(行事) 장소(場所)로 사용(使用)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다.¹²⁾ 이것은 한국(韓國)의 축제(祝祭)나 당산제(堂山祭)와 확실히 구분(区分)되는 특징(特徵)이라고 볼 수 있다.

7. 마무리

지금까지 히요시타이샤[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의 진행(進行)과 특징(特徵)에 대(對)해 살펴보았다. 이 축제(祝祭)는 일본(日本)의 다른 지역(地域)의 축제(祝祭)와 비슷한 면(面)과 동일(同一)한 점(點)이 존재(存在)하고 한국(韓國)의 당산제(堂山祭)나 여타(余他) 민간(民間) 신앙(信仰)과 비슷한 점(點)도 많이 지니고 있다. 앞에서 언급(言及)한 것처럼 시가켄[滋賀県] 오츠시[大津市] 사카모토[坂本]라고 하는 지역적(地域的) 특성(特性), 역사적(歴史的)인 상황(狀況) 등등(等等)이 서로 얹혀서 지금(只今)의 축제(祝祭)로 변화(變化)해왔다고 본다. 특히 생산(生産)과 풍요(豊饒)를 상징(象徵)하는 행위(行為)로서 미코시[神輿]를 통(通)하여 성행위(性行為), 출산(出産) 행위(行為) 등(等)을 재연(再演)해 보이는 것은 한국(韓國) 남원(南原)의 삼동굿놀이와도 일맥상통하는 면(面)이 있다.¹³⁾

전통적(傳統的)인 마을 축제(祝祭)가 신앙심(信仰心)에 기초(基礎)하여 시작(始作)되고 전승(傳承)되고 있다고 해도 경제적(經濟的)인 측면(側面)을 무시(無視)할 수 없다. 축제(祝祭)의 진행(進行)을 위(為)해서도 많이 인력(人力)과 비용(費用)이 소요(所要)되기 때문이다. 이 히요시타이샤[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에 소요(所要)되는 비용(費用)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확실히 발표(發表)된 적은 없다. 다만 다른 지역(地域)에서 발표(發表)된 자료(資料)로 추정(推定)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日本) 동북(東北) 지방(地方)에서 열리는 6대(大) 축제(祝祭)는 모두 24일(日)간(間)에 걸쳐서 열린다. 이때 방문(訪問)하는 관광객(觀光客) 수(數)는 881만(萬)명(名), 관광(觀光) 소비(消費) 지출(支出)액(額)의 추정(推定) 수치(數値)는 대략(大略) 1,426억(億)엔(円)이라고 한다.¹⁴⁾ 이것을 날 수(數)로 계산(計算)하면 하루 59억(億)엔(円) 정도(程度), 일인당(一人當) 지출(支出) 금액(金額)은 16,186엔(円)이다. 이 사실(事實)을 그대로 적용(適用)하기는 어렵지만 히요시타이샤[日吉大社]의 산노사이[山王祭]에 참가(參加)하는 관광(觀光)인수(人數)가 대략(大略) 1만(萬)명(名) 정도(程度)로 예상(予想)하면 이곳에 지출(支出)되는 돈은 1억(億) 6천(千)만(萬)엔(円) 정도(程度)이다. 이 돈은 어디까지나 추정(推定) 수치(數値)이다.

끝으로 이 축제(祝祭)의 특징(特徵)을 몇 가지로 정리(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日本) 산신(山神) 신앙(信仰)의 일반적(一般的)인 유형(類型)을 볼 수 있다. 일본(日本)은 바다 주변(周邊)이나 수평선(水平線) 저 멀리에서 신(神)이 온다는 신앙(信仰)이 강(強)하고 많은 설화(說話)에서 어부(漁夫)가 주인공(主人公)으로 등장(登場)하는 사실(事實)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물과 분리된 산신(山神) 신앙(信仰)의 전형적(典型的)인 모습(模襲)을 볼 수 있다. 일본(日本)의 신앙(信仰) 형태(形態)는 지역(地域)에 따라서 다르지만 서민(庶民) 중심(中心)의 신앙(信仰)은 수평적(水平的)인 신앙(信仰) 관념(觀念)이 강(強)하지만 사카모토 [坂本] 지역(地域)은 히에잔 [比叡山]이 있기 때문에 불교(仏敎)의 영향(影響)이 강(強)하고 나라 시대(時代) 일시적(一時的)으로 오츠교 [大津京]가 있던 당시(當時)에는 국가(國家) 권력(權力)의 핵심(核心) 부서(部署)가 옮겨오면서 대륙적(大陸的)인 영향(影響)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직적(垂直的)인 신앙(信仰) 강림(降臨) 사상(思想)이 강(強)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일본(日本) 사람들의 신앙(信仰) 형태(形態)가 다양(多樣)하고 현실(現實) 생활(生活) 중심(中心)이라는 사실(事實)을 확인(確認)할 수 있다. 이것은 원시종교(原始宗教) 형태(形態)의 민간(民間) 신앙(信仰)이 불교(仏敎)와 습합(襲合)되거나 서로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생활(生活)의 편리(便利)를 도모(圖謀)하는 점(點)이다.¹⁵⁾ 사카모토 [坂本] 지역(地域)은 진자 [神社]와 불교(仏敎) 사찰(寺刹)이 공존(共存)하는데 마을 축제(祝祭)를 위(為)해서 서로 돕고 서로 장소(場所)도 대여(貸与)하면서 신앙(信仰)의 구분(区分)이나 벽(壁)이 존재(存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축제(祝祭)에서도 사루노신지 [申神事]가 행(行)해지는 4월(月) 14일(日)에는 히에잔 [比叡山]의 엔랴쿠지 [延暦寺]의 주지(住持) 스님이 직접(直接) 축제(祝祭)가 거행(挙行)되는 진자(神社)로 와서 진자(神社)의 의식(儀式)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색깔로 된 호우베이 [奉幣]를 헌납(獻納)하고, 불교(仏敎) 의식(儀式)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仏敎)의 경전(經典)인 반야심경(般若心經)을 외운다. 이것은 불교(仏敎)와 신도(神道)의 벽(壁)이 허물어지고 서로 공존(共存)하는 모습(模襲)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이 축제(祝祭)의 가장 중요(重要)한 부분(部分)으로 여긴다. 불교(仏敎)와 신도(神道)가 공존(共存)하는 모습(模襲)은 단순(單純)히 축제(祝祭)의 한 행사(行事)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도 쉽게 확인(確認)할 수 있다. 일본(日本)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 1개월(個月)이 되면 오미야마이리 [宮參]라고 하여 진자 [神社]에 가서 아기의 무사(無事) 성장(成長)을 기원(祈願)하고, 매(每) 7세(歲), 5세(歲), 3세(歲)가 되는 11월(月) 15일(日) 니나메사이 [新嘗祭] 때에는 시치고산 [七五三]이라고 하여 진자 [神社]에 가서 무병(無病) 성장(成長)을 기원(祈願)한다. 그러나 장례식(葬禮式)이나 제사(祭祀) 때에는 불교(仏敎)의 스님을 불러 의식(儀式)을 거행(挙行)하고 사찰(寺刹)에서 관리(管理)하는 묘지(墓地)에 안장(安葬)되는 경우(境遇)가 많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日本) 사람의 종교(宗教) 속성(俗性)으로 한 종교(宗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自身)의 편리(便利)에 따라서 종교(宗教)를 활용(活用)하는 모습(模襲)이라고 할 수 있다.

注

- 1) 에반스 프리차드, 金杜珍 譯, 『原始宗教論』, 探求堂, 1985., pp.83-86.
- 2) 芸能民俗研究室, 『歳時風俗 総括編』, 国立文化財研究所, 2006.12., p.33.
- 3) 芸能民俗研究室, 『歳時風俗 総括編』, 国立文化財研究所, 2006.12., pp.48-49.
- 4) 紀野 一義編, 『仏道の創始者』, アートライズ, 2003.1., p.21.
- 5) 宮地 直一, 佐伯有義監修, 『神道大辞典』 縮小版, 臨川書店刊, 1990., p.260., 国学院大学日本文化研究所編, 『神道事典』, 弘文堂, 1994., p.698.
- 6) 講談社編著, 『比叡山歴史の散歩道』, 株式会社講談社, 1995., pp.84-85.
- 7) 崔 吉城, 『韓国巫俗의 研究』, 亜細亜文化史, 1978., p.21.
- 8) 宮田 登, 「山岳信仰」, 大塚民俗学会, 『日本民俗事典』, 株式会社弘文堂, 1987., p.294.
- 9) 石上 堅 (이시가미 가타시), 『日本民俗語大辞典』, 桜楓社, 1992., p.648
- 10) 芸能民俗研究室, 『歳時風俗 総括編』, 国立文化財研究所, 2006.12, pp.8-12.
- 11) 田中 久夫, 「みちまの飯-祖先祭祀と収穫祭の間-」, 大島建彦編, 『年中行事』, 有精堂, 1978., pp.42-60.
- 12) 朴 炫国, 「近江八幡 (오우미하찌망) 左義長 (사기쵸) 祝祭에 대하여」, 『比較民俗学』 33, 比較民俗学会, 2007.2.
- 13) 朴 順浩, 「삼동굿놀이와 지네밧기」, 『韓國民俗学』 15, 民俗学会, 1982.4.

- 14) 株式会社莊銀総合研究所, 「東北6大祭りの経済効果」, 2007.8., www.sfsi.co.jp.
- 15) 桜井 好郎編集, 『神と仏』 仏教受容과 神仏習合の世界, 春秋社, 1985. 初版, 2000.9.1 刷

참고문헌 (参考文献)

- 金 烈圭, 『韓國의 神話』, 一朝閣, 1980.
- 金 宗大, 『우리 文化의 象徵體系』, 다른世上, 2001.
- 朴 順浩, 「삼동굿놀이와 지네밧기」, 『韓國民俗學』 15, 民俗學會, 1982.4.
- 朴 鉦烈, 『鳳山 탈춤』, 화산 문화 2001.
- 朴 炫国, 「近江八幡 (오우미하찌망) 左義長 (사기조) 祝祭에 대하여」, 『比較民俗學』 33, 比較民俗學會, 2007.2.
- 徐 廷綠, 『百濟金銅大香炉』 古代東北亞의 精神世界를 찾아서, 學考齋, 2001.8.
- 에반스 프리차드, 金 杜珍 訳, 『原始宗教論』, 探究堂, 1985.
- 藝能民俗研究室, 『總括篇 歲時風俗』, 國立文化財研究所, 2006.12.
- 존 카터 코벨, 김유경 譯, 『日本에 남은 韓國美術』, 글을 읽다, 2008.
- 崔 吉城, 『韓國巫俗의 研究』, 亞細亞文化史, 1978
- 石上 堅, 『日本民俗語大辭典』, 桜楓社, 1992.
- 国学院大学日本文化研究所編, 『神道事典』, 弘文堂, 1994.
- 株式会社 莊銀総合研究所, 「東北6大祭りの経済効果」, 2007.8., www.sfsi.co.jp.
- 講談社編著, 『比叡山歴史の散歩道』, 株式会社講談社, 1995.
- 紀野 一義編, 『仏道の創始者』, アートライズ, 2003.1., p.21.
- 嵯峨 井 建, 『日吉大社と山王権現』, 人文書院, 1992.8.
- 桜井 好郎編集, 『神と仏』 仏教受容과 神仏習合の世界, 春秋社, 1985. 初版, 2000.9.
- 滋賀県教育委員会, 『靈山遺跡発掘調査概要 - 大津市坂本本町・比叡山横川所在』, 社団法人滋賀県文化財保護協会, 1978.
- 田中 久夫, 「みちまの飯 - 祖先祭祀と収穫祭の間 -」, 大島建彦編, 『年中行事』, 有精堂, 1978.
- 宮田 準, 『宗教民俗学』, 東京大学出版会, 1990.
- 宮田 登, 「山岳信仰」, 大塚民俗学会, 『日本民俗事典』, 株式会社弘文堂, 1987.
- 宮地 直一・佐伯有義監修, 『神道大辞典』 縮小版, 臨川書店刊, 1990.